Summary of article 0: Positive:  
  
경기도에서 노동자, 기업과의 통합 약속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며, 갈등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통합되어 대화를 나눴다는 글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노동자와 기업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겠다. 상호 이해와 깊은 신뢰로 선뜻 손잡아 준 노·사, 함께해 주신 협의회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약속을 지킬 것이라 담보하였다.  
  
번역: 경기도에서는 노동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십 협의회를 통하여 대화와 약속으로 갈등이 아닌 통합을 이룬다는 글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자들이 산업 전환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이해와 신뢰로 함께하는 약속을 다짐하며 적극적인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Summary of article 1: Positive: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에 합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기 위한 도 차원의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고려한 상생 관계를 바탕으로 노·사 간 양보와 희생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Negative:  
  
이 기사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Summary of article 2: Positive: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경기도 의회의 질의 내용에 대답하여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중증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 제출에 이어,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도내 예술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고르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적·경제적 기회 제공 목적의 기회소득에 집중할 계획이다.  
  
Negative: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들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이 도정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기도 하겠다는 검토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운영권·평화 국장 내부 공모 등 잇따른 정책 뒤집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정치 관계자들은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본격적인 '이재명 색깔 지우기'에 들어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Summary of article 3: 한국 경기도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해 시군별 비상 대응체계를 지난 18일에 가동하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하였다. 건강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활동으로 피해가 많은 개인들에게는 휴식 권고 등 예방 물품 지급 및 이행 상황 점검, 예찰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적극 개방 및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는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6개 반 12개 부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가 선제적 상황관리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폭염 대응체계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강 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함께해야 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고 계소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Summary of article 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회소득'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이해와 설득에 열을 올렸다. 기회소득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며 기회소득이 보편복지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가 기존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지사는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방법을 찾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회소득 문제로 인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인 평가. 급변하는 현재 사회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새를 고민하고자 하는 지사의 노력이 눈에 띈다. 또한, 의회 국회의원과 지사간의 실질적인 대화에서 인식차이를 좁히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Summary of article 5: 경기도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돕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안은 조속히 공포될 예정이다.  
  
긍정적인 기사입니다.

Summary of article 6: Positive: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거주 예술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며, 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군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요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

Summary of article 7: Positive:  
  
의정부 시민 1만 명이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경기도민청원 글을 게시하고, 경기도에서 정책 반영 검토 후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는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의회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지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 달 내에 경기도에서 답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8호선 연장을 본사업으로 반영해 연장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Negative:  
  
해당 기사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Summary of article 8: Positive: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대중재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해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에 대해 더욱 협의하고 지원하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